끊이지 않는 애환과 고뇌의 필흔

——. 대학주보 편집일지 탐험

대학주보사의 편집실을 처음 들어와 본 사람들은 편집실의 천정이 굉장히 낡았다고 한다. 한 십수년간은 족히 페인트 칠을 하지 않은 듯 누렇게 탈색되어 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게 오래 단장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단지 채 몇 달이 지나기 전에 편집실의 천정이 10년의 나이를 먹은 것 뿐이다. 젊음을 태우며 쉴새없이 뱉어낸 담배연기에 편집실은 이내 누렇게 떠 부황이 난 것 같다.

단지 신문을 받아보는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것이지만 거기엔 대학주보기자들의 피가 마르는 초읽기의 긴장과 원고쓰기의 괴로움, 그리고 생각과 글 사이의 감당할 수 없는 간격에 대한 절망과 고통이 담겨있다. 그러나 그 고통으로 신문이 나오면 늘 느끼는 부끄러움은 변호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그것을 신문에 다 쓸 수도 없는 일이다.

대학주보 기자들은 그 남은 말의 앙금을 '편집일지'에 적는다. 검은 표지에 16절지 시험지를 묶어둔 모습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거기엔 대학주보 기자들의 슬픔과 분노가 남겨있으며 진정한 말의 토로이기에 신성시 되기도 한다.

사람은 하나의 필연적 시간의 변화에 그렇게도 많은 사상의 변화를 강요한다. 묵은해와 새해의 시간적 차이가 무어냐. 그 일순간에 앞뒤가 바뀐다. 오히려 인간은 이러한 것에 의지를 부가하여 오직 자기 발전의 계기로 사용할려는 의지를 가질 뿐이다.

한 권의 편집일지가 다하면 또 한권이 묶여진다. 오직 시간의 경과 후에 다만 그 진의를 알 수 있으리라.

모든 사건을 직시하고, 또 바로 파헤칠 수 있고, 전통적 사회에 대한 반골의 강인한 생명력을 항상 발휘 할 수 있는 모든 도깝이들의 일지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12집 첫장〉

비슷한 내용이지만 도깝이(대학주보 기자들의 애칭)의 위트가 번득이는 또 하나의 글을 보자.

"訓記者正音"

기자 제위들의 개성이 제각기 괴팍하고 특출하여 그 생각들이 서로 맞지 아니하고 중구난방. 오합지졸·좌충우돌 하매 이런 까닭으로 도깨비들이 자기의견을 널리 펴고 싶어도 마침내 그 뜻을 제대로 표출하지 못하는 것이 많았던 바 내 이를 불쌍히 여겨 편집일지 제 32집을 엮으니 도깨비들은 두려워 말고 그 의견들을 추호의 거짓도 없이 기록해야 할 것이니라. 〈87. 1. 13〉

편집일지에는 시, 수필, 아포리즘, 일기, 편지등 신문언어로 감당할 수 없었던 언어들이 장르를 넘나들고 있으며 거기엔 욕설과 음담패설도 이미 조탁을 넘어서서 말의 진실이 번득이고 있다. 그것은 대학주보 뒤에 가려진 기자들의 애환이 담겨있기 때문일 것이다. 논리와 이성으로 정렬된 신문의 활자 뒤에는 그것을 위해 감당해야 했던 기자들의 힘겨운 희생이 남아있다.

적어도 대학주보의 1천호는 그 지령 만큼의 화점 빵구와 '연기가 나도록 뛰어다니다'가 닳아 없앤 신발 뒷굽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원고청탁, 수거, 편집, 취재, 기사작성, 교정, 조판 … 20대의 팔팔한 체력도 이 빡빡한 일정에는 고갈되기 일쑤다. 아래의 우스꽝스런 '성명서'에는 개인적 시간을 모두 버려야했던 기자의 투정이 밉지않게 담겨있다.

성명서
우리는 더이상 참을 수 없다.
우리 대학주보사 정기자 노조는 대학주보사 사장에 부당 노동행위를 철저히 항의하며 아울러 이러한 부당노동 행위가 계속될 경우 파업도 불사 할 것이다. 하루 18시간의 노동과 주7일중 7일 노동에 시달리며 지난 주에는 오모 기자가 과로로 1주간 병원에 입원했었고 전기자가 입사초보다 10킬로그램이 말라버렸다. 더이상 우리는 이 지옥같은 작업장에서 일할 수 없다.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일어서라! 노동해방의 불기둥으로… 〈88. 10.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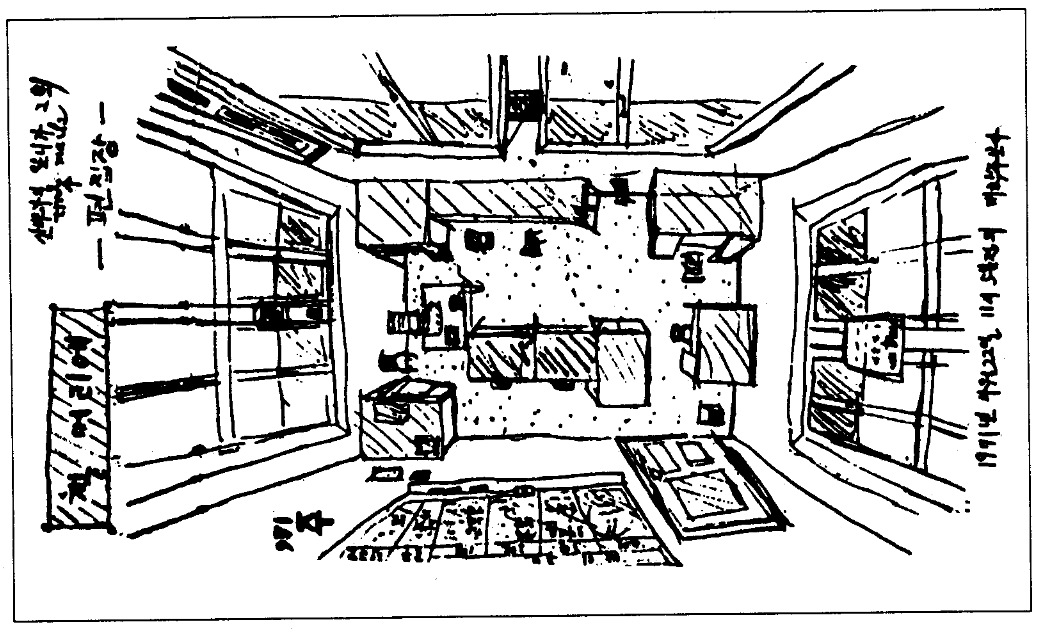
아마도 당시 노동문제가 사회에 대두되었을 즈음 작성된 이 성명서에서 우리는 대학주보기자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다. 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시간을 신문제작에 투입했던 것이다. 그러나 어찌 그 때뿐이랴. 아예 인생을 송두리채 투입하기도 하는 것을.

난 구역질나는 내 인생을 여기에 토해버렸지
바로 여기서 말야! 〈77. 4. 14.〉

대학주보 기자들은 누구나 편집실에 자신의 인생을 토해놓기 마련이다. 어떤 시절이었건 간에 적어도 한국 현대사 속에서 대학신문 기자의 말(言)은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진동을 하였고 그것은 멀미를 일으키기에 충분했기 때문이었다.

발톱과 이빨 그리고 피를 달라
맑고 차가운 물을 먹고 싶다
〈75. 11. 3. 잃어버린 '학생의 날'〉

봄날, 꽃이 피는 것을 바라보기가 두렵다.
둔덕을 가득히 메꾸며 일어서는 풀잎을 보다가
목이 말라 견딜 수가 없었다.
〈84. 5. 3〉



시대적 아픔과 고뇌속에서 투쟁의 의지다져
"흔들리지 않게 대학주보 깃발 흔들리지 않게"

도무지 거대한 적과 싸울 수 있는 도구를 모두 빼앗긴 상태에서 겪는 절망의 무게는 얼마나 될 것인가. 편집일지에 나오는 단어를 통계적으로 분석하면 아마도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갈증'에 관한 것일 게다. 군화발과 감시의 눈길이 횡행하던 '타는 목마름'의 시대가 남긴 유산이다. 그 시대를 잠시 짚어보자.

言論이 〔언놈(어느 놈)〕으로 바뀌어져 입이 비뚤어진 놈들이 잡혀들어갔고
입만 벙긋하면 〔黃 〕을 집어넣으니
우리들의 동지들이 한사람 여기, 또 그 곁에 한사람
이런 식으로 붉은 벽돌로 우아하게 담을 쌓고 도둑놈이 넘어오지 말라고 〔言論쟁이〕를 지켜주는 집. 기념물로 보전하자. 〈76. 5. 28〉

툭하면 철창에 가둬놓던 시대의 이야기다. 좌절과 절망의 시대이다. 아울러 막걸리의 시대이기도 하다. 잠시 마취를 위해 만취를 행한다. 낮술의 얼큰한 절망이 편집일지 곳곳에 보인다.

해장술이나 한잔 해야 하나. 어제 먹은 소주가 아직 미분해되었는지 쏴한 소주 냄새가 올라온다. 빈속에 라면국물, 커피… 〈84. 4. 18〉

도깨비 십계명중의 첫번째가 '술을 먹을 때는 냉수마시듯 마셔라 〈74. 4. 4〉'인 것만 보아도 대학주보의 술문화는 가늠할 만하다. 술마시고 몸살 난 기자의 절규는 일단 접어두자. 술마시는 양과 고뇌의 깊이는 비례한다니.

그러나 취기가 오래 가는 것은 아니다. 곧 기자들은 일어나 전의를 불태운다.

용수철은 누를 수록 튀어 오른다.
그러나 늘어난 용수철은 튀어 오를 수 없다.
긴장. 긴장을 유지할 때 용수철일 수 있다.
투쟁은 원초적인 것이다. 〈85. 4. 17〉

韓國은 限國이라고, 혹은 恨國이라고 부르지 말라. 미증유의 부정선거가 초대로 악화된 경제 사정이, J군의 아세안 5개국 방문 모두가 韓國 限國 恨國이 낳은 세계적인 실패작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나 거기에 정의가 있었다고 말하기 위하여 혹은 단 한 순간의 역사를 위하여 제군들이여, 술을 마시고 또 토하자.
우리는 다혈질이다. 〈81. 5. 12〉

편집일지의 태반이 한숨과 푸념으로 채워져있지만 그러나 그 다음은 어김없이 결의를 다지는 문구가 나온다. '45도로 닳아진 구두를 신고도 똑바로 서있어야 하는' 쓰러질래야 쓰러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대 한자루 붓으로 남을 캠퍼스의 도깨비여! 45도로 뒤축 닳은 구두를 신고도 곧바로 설 수 있는 정의감과 한잔 술에 얼어야 바로 보이는 세상에서의 인욕의 념을 견지하여라.
편집실의 문턱은 낮아도 마음은 높아야 하나니. 〈수원 1집 발간사〉

그리고 이미 70년대 말 지금의 운동가요가 가지는 행진곡풍의 강렬한 노래가 나온다. 민주의 염원과 자유를 위해 투쟁하는 대학주보의 송가가 나온다.

정의와 용기는 젊음의 생명
우리의 깃발이 높이 솟았다.
외쳐라 젊은이여 호국의 정기
민족을 이끌고 지켜온 용사
삼천만 겨레가 뒤를 잇는다.
아아 자유를 위하여 피흘린 이 땅
승리의 여명이 동터오른다.

—당신들은 언제나 義人이길 바랍니다. 〈79. 8. 14〉

그렇다. 대학주보가 오늘에 이르기 까지는 그 숱한 恨과 그것을 이겨내기 위한 기자의 순정과 갈구가 담겨있으며 오랜 세월 억압에 차라리 닦아져 빛나는 희망이 남아있다.

기자는 가난하다. 그러나 마음은 가난하지 않다.
굶주리라. 그러면 맛좋은 줄 안다.
기자의 몸은 나약하다. 그러나 정신은 쇠덩이 같이 단단하다.
기자의 펜촉은 가늘다. 그러나 그 '찌름'은 무엇보다 강하다.
대학주보사로 가라! 거기엔 모든 것이 있다.
결코 실망하지 마라! 희망을! 〈72. 4. 21〉

장장 50여권을 헤아리는 편집일지에는 위에 추려둔 말보다 더 아름답고 더 주옥같은 명문장들이 있다. 어디 책으로 엮어도 부끄럽지 않은 말들의 성찬이 차려져 있다. 다만 대학주보 도깝이의 것으로 남아있어야 할 것이기에, 아직은 그 모든 말은 전설처럼 남아 술안주가 되는 것이 차라리 나을 듯 하다.

못다한 얘기는 낙지집 술안주로 남기기로 합시다.
흔들리지, 흔들리지 않게 대학주보 깃발 흔들리지 않게 〈79. 10. 22〉

〈문화부〉

제호변천사

참뜻 위한 대학주보의 상징

新興大學報 1955. 5. 12 (1~99호)
경희대학주보 1960. 3. 25 (100~105호)
대학주보 1960. 6. 30 (106~799호)
대학주보 1984. 4. 2~현재 (800호~현재)

1955년 5월 12일 '新興大學報'라는 이름으로 역사적 출발을 한 '대학주보'는 35년의 기나긴 세월과 함께 장족의 발전과 변화를 거듭했다.

그간의 세월속에 온갖 희생과 노력을 받쳐온 '대학주보'는 시대의 변천에 따라 세번의 개제(改題)를 하게 된다.

경희가 종합대학으로 승격된 1955년을 계기로 창간호를 발간하게 된 '대학주보'의 제호는 당시 교명에 맞게 '신흥대학보'였다. 월간, 순간(旬刊)등 어려운 초창기 '신흥대학보'시대는 1960년 3월25일 지령 1백호를 맞아 '경희대학주보'로 잠시 바뀌었다가 동년 6월30일자 106호로부터 현재의 '대학주보'로 그 제호가 확정되었다.

한반도 지도위에 일중 김충현 선생이 쓴 '대학주보'란, 글자 안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신문이 되고자 하는 목표와 늘 깨어있는 언로가 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내포되었다.

세로의 제호가 지금과 같이 가로쓰기로 바뀐것은 1984년 4월 2일 '대학주보'편집체제가 전면 가로쓰기로 전환한 지령 8백호부터이다.

그 당시 '신문의 일대혁명'이라 불리운 가로쓰기 체제는 언제나 앞서가는 신문으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이었으며, '대학주보'의 제호 또한 가로쓰기의 체제에 맞춰 다시 도안하게 되었다. 글자를 가로배열로 그대로 쓴 후 바탕 도안 역시 바꾸었다. 우선 가로의 중앙부인 '학'자와 '주'자 사이에 평화의 상징인 올리브가지에 쌓인 세계지도 즉, 경희의 교표이자 유엔헌장의 '민주·평화·복지' 정신에 바탕을 둔 경희의 창학정신을 상징하고, 그 위에 우리가 살아가는 한반도를 백색으로 그려넣었다. 그위에 '대학주보'가 있음은 그런 의지와 이상을 이끌어 가고 독려하며 대학언론의 사명을 다할 '살아있는 대학사회의 거울'로서 대학주보의 지향성을 표상하는 것이다.

나머지 여백은 백색의 꽃으로 순결과 정직을 그리고 하늘을 향해 피어 높은 기상을, 짙은 향기로 그윽한 품격을, 봄이면 먼저 피되 군개·군락(群開·群落)하여 선구자적 기개에 겸비한 협동과 단결의 정신을, 에머랄드빛 잎으로 영원과 발전을 뜻하므로 이를 포괄하는 대학주보의 발전적 의지를 담은 것이다.

이상과 같이 35년이란 경륜을 쌓으면서 '대학주보'의 제호는 3번의 변화를 맞이했다. 이땅의 최고의 대학언론이 되고자 노력했던 '대학주보'는 이간의 시간을 거쳐 오면서 이제는 더높은 경륜과 품격으로 새로운 도약의 시대를 맞이하고자 한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에 대한 또한번의 다짐이요, 앞으로 계속될 '대학주보'의 약속인 것이다.

「축」 창간 37주년 지령 1000호

이사도라 던컨,
에디트 피아프,
프랑소와즈 사강,
카미유 클로델,

아름다워지는 일에도
누구보다 치열했던 그들…

지성의 향기와 함께
아름다움을 가꿔가는 대학생활이 되세요.

맨발의 춤으로
현대무용의 지평을 연 이사도라 던컨,
"장미빛 인생"을 노래하며
불꽃같은 삶을 살았던 에디트 피아프,
프랑스 문단의 매혹적인 작은 악마로 불리는
프랑소와즈 사강,
로댕의 연인으로 열정의 예술혼을
조각에 담았던 카미유 클로델…

예술에 대한 갈망과 지성의 탁월한 향기로
한 시대를 치열하게 살았던 그들입니다.
그 뜨거운 삶만큼 가슴 태우는 사랑이 있었으며
자신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몰두할 줄 알았던
여인들이기도합니다.

가장 빛나는 시간으로 기억될 대학생활 –
그녀들의 삶이 그러했듯 지성의 향기와 함께
자신만의 아름다운 빛깔을 가꿔가세요.
그 어느 누구보다,
뜨겁고도 아름답게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세요.

아름다움이 있는 대학생활 –
아모레 순정과 함께하세요.
아모레 순정은 17개 종합병원
피부과와 공동연구개발된
보다 안전한 민감성 피부
전문화장품입니다.

태평양화학